

역경을 이기고

消防人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 숭고함과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봉사의 직업에 몸 담은지도 어느덧 16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의 세월은 나에게 많은 희노애락을 가져다 주었지만 1986년 11월 4일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주최한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에서 수상한 소방안전봉사상은 나와 내가족에게 가장 큰 감격과 긍지를 심어주고 16년여의 소방공무원생활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승리감에 도취된 자만심을 억제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일에 대한 보람을 마음껏 누리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열과 성을 다해 수행한 직무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나 기실 평범한 공무원으로서 주위의 도움과 질책에 힘입어 소방인으로는 최대의 영광과 즐거움을 받은 것에 감사할 뿐이다.

나는 45년전 시골에서 태어나 전형적인 시골 어린이들의 성장기를 거쳐 군복무를 마치고 아버

지를 도와 농사일을 거두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안되는 농토로 모든 식구들의 생계를 이어나간다는게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결국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세계로의 도전을 결심하고, 고향에서 멀지 않은 ○○탄광에 새직장을 얻어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그 해 겨울 하숙을 하고 있는 앞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모든 동리주민들이 모여 불을 끄기 위해 애를 썼으나 세찬 바람에 불은 꺼질 줄 모르고 자꾸만 번져가고 있었다. 발을 동동구르는 주인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 하여야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암담한 상황이었다. 우선은 급한 것이 소화작업이겠으나 이미 잿더미가 된 가재도구며 연소중인 가옥과 각종 살림살이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혀 감조차 잡히지 않았다. 불을 꺼졌다는 만족감 보다는 폐허가 된 집터에 주저 앉아있던 집주인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아뭏든 이것이 나에게 소방인의 길을 걷게한 계기가 되어 1970년 12월 1일 포항소방서에 임용되면서 새로운 각오로 소방관의 외길 인생을 걸어왔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소방관생활 역시 쉬운 것은 아니었다. 동절기 혹한하의 화재출동, 화마와 싸우는 위험부담, 엄격한 규율속에서 대기상태의 긴장감 등 감내하기에 벅찬 생활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려는 소방관에의 길이 어찌 평탄하기만 하겠는가라고 스스로를 독려하면서 오늘도 철강도시 포항 지역사회 방재의 기수로서 화재의 예방과 진압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그동안 소방관 생활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일로서는 1985년 10월 포항시 청림동 소재 ○○정미소 화재로서, 출동명령에 응시느런 바람을 가르고 요란한 사이렌소리를 발하며 화재현장으로 질주하고 있었건만 그날따라

더디게 느껴지는 심정은 왜그런지 갑갑하기만 했다. 현장이 가까와짐에 따라 하늘로 치솟는 불기둥은 어림잡아 20~30m 정도 되는 거대한 것으로 불꽃춤이 일고 있었다. 우리 출동대는 이렇게 되도록 신고가 지연된 것에 놀랐다. 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이미 화재는 전성기에 도달해 있는 것이 아닌가. 도리 없이 정미소 기계는 어찌할 수 없더라도 고정하여 놓은 쌀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공장과 창고의 중간에 부서하여 후착대가 올 때까지 필사의 방어에만 주력하였다. 끈이어 도착한 후착대와 합세하여 거대한 화재의 기를 꺾어 놓고 보니 어느덧 동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엿가락처럼 휘어진 정미소 내부의 잔화정리를 마치고 귀소하려고 하는데 다시금 연기가 피어올라 가보니 왕겨창고에서 왕겨가 서서히 안으로 혼소하는 것이 아닌가. 중소도시의 소방관들이라면 어쩌면 겪어 보았을 힘든 작업이 다시금 시작되었다. 왕겨를 일일이 파헤쳐 다시금 방수를 하다보니 어느덧 동녘에는 아침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출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파출소에 돌아온 동료들의 모습은 전쟁터에서 막 돌아온 병사같다고 하면 과연 과장된 표현일까?

범벅이 된 내 자신의 육체를 씻는 것은 두번째다. 우선 다음 출동에 대비하여 수관을 적재하고 더러워진 수관은 깨끗이 씻어 건조대에 널고 보니 세면 조차 할 힘도 없었다.

우리들의 이러한 실상을 결코 내세우고 싶지도 않다. 더우기 칭송은 바라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들 소방관의 맡은 바 소임이니까. 아무도 몰라주어도 좋다. 하지만 타버린 정미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듯이 화재를 한번 당하면 어떤 형태이건 간에 물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인적피해까지도 수반된다.

불의 방지를 위한 투자와 소화작업에 투입되는 경비 또한 적지 않은 것이고보면 생활화된 불조심이 가장 시급하고 그 다음이 출화시 화재감지와 소화작업에 필요한 시설이다.

물론 소방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로써 충분하겠으나 소방대가 도착전, 즉 발화 즉시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소방시설과 숙련된 자위소방대를 갖추었다면 불에 의한 피해는 절대치가 감소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화재현장에 도착해 보면 신고시간이 너무 늦었거나 초기 진화에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불의 제거등 소화작업에 대하여 너무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구나 방화시설에 대한 투자 기피 경향이 있어 화재에 대한 계몽과 시설개수를 권장하기 위해서 몇번이고 대상처를 방문하지만 당장 투자에 대한 이득이 없으므로 방재시설을 기피하거나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예를 종종 보게 된다. 어느 정도 불을 안다고 자부하는 소방관의 입장에서 그들을 볼 때 그들보다도 내자신이 더욱 안타까워지는 심

정은 왜 그럴까. 비록 이러한 업소는 방호 대상처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나 화재는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이고 보면 단 1개소의 대상처라도 효과적인 방화시설의 설치유도와 불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인내를 가지고 뛰어 나셨다. 이것은 나의 일관된 직업관에서 우러 나온 것으로, 절대 다수의 소방관이 평소 업무에서 공통으로 느끼고 수행하는 일과중의 한 부분이지만 성의를 가지고 임하였다는 데 자부하고 싶다.

오늘도 또 내일도 나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나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화재없는 선진조국의 창조라는 우리 공동의 목표를 이룩하기 위하여 기꺼이 이 한몸 바칠것을 다짐한다.

끝으로, 오늘의 수상이 있기까지 도와주신 여러 어른들과 한국 화재보험협회의 이사장님을 포함한 임직원 여러분, 포항소방서 서장님을 비롯하여 직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



오 대 상
(포항소방서 소방장)